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2호 [루게 제23459호] 주제 100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지!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자

백두령장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낳은 빛나는 결실 지난 1년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서 이룩된 기적적인 성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기 위한 대고조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일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현지지도하신 이후 지난 1년간 1호발전소가 성과적으로 조기조업한데 이어 2호, 3호발전소건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것을 비롯하여 집약적인 공사속도가 지난해보다 1.2배로 뛰어들었다.

이 자랑찬 성과는 경에 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려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전국의 청년동맹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숭고한 조국애를 지니고 조국의 흥성번영을 위하여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우리 청년들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위대한 장군님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대한 현지지도는 청년동맹원들과 전국의 청년동맹원들이 북방의 대규모 수력발전소건설에서 청년전위의 용맹을 더욱 떨칠수 있게 하여준 커다란 원동력으로 되었다.

경에 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정지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그 나날 수 많은 청년동맹일꾼들이 전국의 장군님께서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에 실천적성공로 보답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었다.

경에 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은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조선은 결실하면 한다!》라는 신념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든 청년동맹원들은 지난해 9월말까지 14만여㎡의 연제콘크리트기기를 진행하면서 콘크리트연제 내부노드를 낮추기 위한 공법을 비롯한 선진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1호발전소 조기조업일을 6개월 이상이나 앞당길수 있게 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건설에서 긴장하게 제기되는 수송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 전동맹적인 수송경쟁이 조직되고 수송경쟁에 참가한 청년운전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수송전투를 벌여 방대한 량의 물품을 제때에 운반하는 집단투력을 일으켰다.

당장전 65톤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기 위해 온 나라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던 지난해 9월 연제기배수마감물막이가 진행되고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가 조기조업되어 건설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백두산지구의 전력문제를 푸는데 기여하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현장 지휘부에서는 1호발전소를 성과적으로 조기조업한 기세드높이 2호발전소건설을 조직하여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경에 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적응주의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예술선동력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편파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집중적으로 파견하여 4200여차례 걸치는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청년동맹원들과 건설자들을 영웅적위훈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동맹원들의 정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앞장서서 실시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쳐왔다.

2호발전소건설에서는 조업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전기설치공작, 부지성토 1만여㎡ 등 방대한 일을 해체했으며 3호발전소 연제기배수로공작도 해나갔다.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하며 생산과 건설에 최첨단기술자들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호소를 가슴에 새긴 청년동맹원들은 가동방에 의한 불락구간시공방법과 구역분할법에 따르는 피복방법을 비롯한 20여종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공사에 받아들여 국가에 막대한 리득을 주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물동수송을 돕기 위하여 각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들과 우수한 청년운전자들을 건설현지에 내

보내도록 하고 도청년동맹위원회들 호상간 수송경쟁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10만여㎡의 골재와 세멘트, 진흙, 수직차본의 발전설비들과 자재들을 제때에 실어나를수 있게 하였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예술선동력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편파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집중적으로 파견하여 4200여차례 걸치는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청년동맹원들과 건설자들을 영웅적위훈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동맹원들의 정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앞장서서 실시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쳐왔다.

2호발전소건설에서는 조업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전기설치공작, 부지성토 1만여㎡ 등 방대한 일을 해체했으며 3호발전소 연제기배수로공작도 해나갔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물동수송을 돕기 위하여 각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들과 우수한 청년운전자들을 건설현지에 내

새 세대 청년들의 고결한 정신도덕적 품모를 과시

올해에 1만 9천여명의 청년들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단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기념하여 14명의 청년들은 선군청년총동맹대회 호소문을 접하고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당의 강성대국건설수송을 현실로 꽃피우며 두번다시 없는 청춘시절을 빛내어 갔다고 하면서 흥남가스화재상선설장으로 판원하였다.

평성사범대학 졸업생 김희철동무, 평안북도청년발전소건설에서 청년들의 영웅적기개와 전투적기상을 높일수 있게 하는 선군시대 청년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숭고한 의의의 실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중요한 초소(小所)에서 한뼘 단단히 하고있습니다.》

단원광업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 김성광동무를 비롯한 14명의 청년들은 선군청년총동맹대회 호소문을 접하고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당의 강성대국건설수송을 현실로 꽃피우며 두번다시 없는 청춘시절을 빛내어 갔다고 하면서 흥남가스화재상선설장으로 판원하였다.

평성사범대학 졸업생 김희철동무를 비롯한 31명의 졸업생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기 위한 장엄한 대고조격전에서 청춘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불타는 지향을 안고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로 향하고 있다.

업소의 자연호흡식배수경건설장에 삶의 위치를 정하였다.

평양장충중학교 졸업생 유효숙동무와 평양북중중학교 졸업생 강보위동무의 3형제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로 들끓는 격정장에서 청년영웅이 될 결심을 안고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 판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졸업생 안혜성동무는 한생을 살려서 당을 받든 안달수농민의 손녀답게 농사경전에서 선군시대 청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벽성군서원협동농장으로 진출하였다.

창성군도시건설사업소 노동자 임수정동무는 쌀로써 우리 당을 옹위하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애국청년이라 될 불같은 열의를 안고 창성군인산협동농장으로 진출하였으며 개천시 광복중학교 졸업생 김일성동무도 한평생 포진기를 걸고선 어머니수령님의 후원을 관철하는 길에서 한생을 갚아내겠다는 다짐을 안고 개천시 봉진협동농장에 삶의 뿌리를 내리었다.

원산중등학교 졸업생 김진중동무는 높이 72m의 졸업생들은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올해공동사업과 선군청년총동맹대회 호소문을 받아들인 안변기초시물품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공업공장에 판원하였다.

평양선원중학교 졸업생 한철중동무를 비롯한 보통강구역안의 25명의 졸업생들은 평양시를 공원수

의 도시로 훌륭히 꾸리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구역화초사업소에 자원진출하였으며 평양유류중학교 졸업생 리향미동무는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청년들이어야 할 위치는 당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초소라고 하면서 평양방직공장에 판원하였다.

보통강구역 류경1동에서 살던 위영심동무도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두만강어업소 개건전투에 한몫 다 바치겠다고 하면서 건설장으로 달려나갔다.

이밖에도 황해북도증동협원 졸업생 장용범동무를 비롯한 70여명의 졸업생들과 농업성 아례내로 동자 리향심동무, 갑산군사회교양관리소 갑산탄산물시당 노동자 김금성동무, 리수덕원산교원대학 교원 리광중학교 졸업생 김일성동무도 한평생 포진기를 걸고선 어머니수령님의 후원을 관철하는 길에서 한생을 갚아내겠다는 다짐을 안고 개천시 봉진협동농장에 삶의 뿌리를 내리었다.

원산중등학교 졸업생 김진중동무는 높이 72m의 졸업생들은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올해공동사업과 선군청년총동맹대회 호소문을 받아들인 안변기초시물품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공업공장에 판원하였다.

평양선원중학교 졸업생 한철중동무를 비롯한 보통강구역안의 25명의 졸업생들은 평양시를 공원수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유리를 보내주기 위하여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안천선유리공장에서-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사회주의제도가 베푸는 또 하나의 혜택

평양산원과 각 도산원들에서 선진의료봉사 진행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 보건의료정책에 평양산원과 각 도산원들에서 또 하나의 선진적인 의료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평양산원을 비롯한 각 도산원들에서 경막의 마취에 의한 무통해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여성들의 건강보호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평양산원과 각 도산원들에서 진행되는 경막의마취에 의한 정상산도무통해산방법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오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해산방법이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산부의 고통을 덜어줄뿐아니라 산모로서 인신 안전을 위한 건강을 막고 생애주기상 정상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며 해산을 쉽게, 빨리, 안전하게 끝냄으로써 태아의 해산순수상을 막는다는데 있다.

대한 의뢰자가 드는것으로 하여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부유한 계층의 여성들이만 받을수 있는 의료봉사이다.

전문적무수료제에 의한 또 하나의 선진적인 해산의료봉사는 근로하는 인민들의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보살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배울수 있을 수 있는 크나큰 혜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녀성들이 해산할 때 무통법을 적용하는것은 하나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평양산원에서 선진적인 해산방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을 다뤄주시었다.

정상산도무통해산방법을 훌륭히 연구한것에 이어 이를 립실현에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사업을 비롯없이 짜고들으로써 지난해 10월부터 평양산원에서 해산하는 여성들에게 선진의료봉사를 진행하여왔다.

지난해 각 도산원의료일꾼들에게 무통해산방법을 배워주기 위한 기술강습이 진행되었으며 그 도입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무통해산에 필요한 막대한 량의 약품들과 소모품들, 해산감시장치와 마취제를 자동적으로 주사하는 미량주입기 등이 평양산원과 각 도산원들에 공급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각 도산원들에서도 이 무통해산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4월말현재 평양산원과 각 도산원들에서는 적용종이 못되는 일부 대상들을 제외하고 입원한 거의 모든 임신여성들이 무통해산방법에 의한 의료봉사를 받았다.

평양산원과 각 도산원들에

가스충진장건설 마감단계에서 추진

평양시에 능력이 큰 가스충진장이 새로 건설되고있다. 수도시민들의 열감문제해결에 이바지하게 될 가스충진장건설은 착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완공의 날을 가까이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살림집들에 난방과 끓인대, 먹는물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바로세워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대고조에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수도

시민들의 열감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가스충진장을 하루빨리 건설하여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열감수요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투쟁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평양시인민위원회 해당 국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가스충진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울데 힘쓰는데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엄윤학, 현영호, 윤병배, 문남철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건설자로서는 짧은 기간에 1000m가 훨씬 넘는 도로를 타고 1.2km의 율리공사를 완성하였으며 근 3만㎡에 달하는

토량을 처리하였다. 일꾼들은 자체의 힘으로 수많은 세멘트와 모래, 자갈을 제때에 보장하여 압축기, 가스저장탱크, 장과 양수장, 사무실, 물량크 등 많은 건물들을 훌륭하게 일떠세웠다. 이와 함께 설비조립, 전도도 팀적으로 벌려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었다.

시당의 구역연료사업소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건설을 함께 책임진것으로 가스충진장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일꾼들과 건설자들, 구역연료사업소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가스충진장건설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상반년계획완수자대렬이 늘어난다

인민생활대고조에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선의 주기관차대에서

충진사들이 5.18무사고정시전인조과운동의 불길은 세차게 지퍼올리면서 중추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의 로동력급은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초병으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수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야 합니다.》

올해공동사업과 김철로동계급의 호소를 피뎌는 심장마다

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발전되는 긍정적소행들을 제때에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는 한편 혁신자축하모임을 조직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더 많은 점을 실어날라 올해의 총동맹전에서 승리의 영예를 떨쳐나갈려는 기관차,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작업반들에서의 수송실적은 날을 따라 높아지게 되었다.

혁신의 불길은 내년 220호작업반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이곳 작업반의 수송전사들은 기관차의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지난해 1.4분기 수송계획을 넘쳐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기관차의 내년 312호 책임기관차 김일덕, 내년 629호 책임기관차 정순호, 내년 107호 책임기관차 한명동무들을 비롯한 9명의 기관사들은 5.18무사고정시전인조과운동의 불길은 세차게 지퍼올려 상반년 수송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수도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리진명 찍음

